

# '한약문제 해결 위한 범국민대책위' 구성된다 한약품질관리기본법 제정 위한 입법활동 계획

최근 의사협회의 한약재부작용 공방이 이어지면서 생약생산자단체와 한약업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약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생약협회와 농협, 약용작물협회 및 농민단체를 비롯, 한약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와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 한의사협회, 한약발전연합회 등 관련단체, 그리고 복지부와 식약청, 한의학연구원 등 정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최근 의사협회의 '한약 부작용' 제기로 인해 한약업계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단체 중심으로 의사협회를 방문하여 한약비방 중지를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한약 비방행위가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 한약 생산, 제조, 유통과정의 어려운 난제들을 한약관련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관련기관이 나서서 문제점을 취합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약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준으로 한 믿을 수 있는 국산한약재 재배 및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현재 한약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칭) 한약품질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사업방향은 △한약문제의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토론회 진행(4월중순) △국산한약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4월중) △국산한약재의 우수성 홍보(5월초) △한약품질관리기본법 법제화 사업 등이다.

## '유해논란' 중국산 인삼 반입제한 인천공항세관

최근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이 3월1일부터 제한됐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삼의 경우 통관규정상 한약재로 분류돼있어 수삼·백삼·홍삼등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 물량의 무게가 300g 이내이면 세관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분간 중국산 인삼류를 반입할 경우 면세통관 범위(300g) 이내라 하더라도 식물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안전성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는 최근 검찰이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생산·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BHC와 부패방지용 농약 퀸토젠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국내 유통한 업자들을 적발하면서 중국 삼의 안전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세관은 "농약 성분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인삼에 대해 식약청 등 국가기관을 통한 공신력 있는 안전성 확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중국산 인삼류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해외 여행객들은 중국산 인삼 휴대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별 한방약초축제 '풍성'

새봄을 맞아 지역별 한방약초축제가 풍성하다.

서울약령시축제가 오는 4월 29~30일 양일간 열린다. 서울약령시장 1번아치 골목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보제원 제향을 시작으로 △수입 및 국산한약재 전시, △약초 꽃이를 맞추기, △건강 전통차 시음회, △금연침 및 다이어트침 시술, △무의탁노인 무료진료 등 볼거리와 참여할 거리가 풍성하다.

경남 산청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산청읍 산청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5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한다. 산청공설운동장내 홍보 전시관에서는 1천여점의 약초, 약술과 경호강의 물고기, 지리산 곤충 표본 200여점이 전시되고, 약초 전시관에서는 1천여종에 달하는 약초의

효능과 복용방법, 제조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또 한방과 약초를 이용한 한방카테일 무료시음,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이용한 한방약초 웰빙오리 경진대회도 열린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5월 4~8일 중구 약전 골목과 약령시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나라님 한약재 진상 행사, △전국 최우량 한약재 선별대회, △2005명과 함께하는 정성탕 나눔 행사, △한약만들기 체험행사 등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9~27일까지는 전남 구례 산수유축제가, 4월1~3일까지는 경기도 이천 산수유축제가 각각 성황리에 개최됐다.

## 한방산업단지, 지역특성 맞게 조성 복지부, 추진방안 6월에 협의회 상정

한의학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권역별조성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지역특성(경쟁력)이란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사업지침을 각시·도에 시달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세부 사업지침은 향후 구성될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이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한약진흥재단, 한방산업진흥원 등 소수기관의 제품화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식품 및 한방제제의 제품화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약재 재배 및 유통, 의료서비스업 역시 제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선 이미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계속 추진하는 한편 대구·경북이 제출한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및 한약자원개발사업 계획(총사업비 714억원)은 타당성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우수한약재 생산기반이 조성되며 수입한약재의 품질도 확보된다. 아울러 주요한약재의 유효성분 규명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를 보고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한약

검사체계를 보강,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 성적서의 식약청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과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체계 및 시험항목 등이 상이한 의약품과 식품용 한약재의 합리

## 한약재 개별중금속 6월 개선 식약청, '한약품질관리개선' 밝혀

품질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한약재의 총 중금속 기준을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개선(6월중)할 것"이라며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경우 현행 5개 성분에서 42개 성분으로 확대하고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10월에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청은 수입한약재

적인 관리방안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한약재 과학화연구 및 제조공정 표준화와 관련, 감초·작약 등 사용대빈도 품목 16종에 대한 구조 확인과 분석법 개발, 효능검색 등을 통한 한약재별 유효성분 규명을 벌이고 다빈도 한약재 20종에 대한 제조공정 표준화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사소식

####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 발표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영천시 한약재 유통산업 육성 심포지엄

영천시가 주관하고 대구한의대학교 RIS사업단과 동우당제약(주), (주)청보건강 주최로 열리는 「영천시 한약재 유통산업 육성 심포지엄」이 오는 5월 12일 14시 영천시(장소 미정)에서 열린다.

#### 산청군, 한방 산업 관광지로 탈바꿈

경남 산청군이 한방산업 관광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최근 산청군에 따르면 1천18억7천600만원으로 군 전역에 약초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공·판매하는 한방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뒤 관광시설을 갖춰 관광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군은 200ha 규모의 권역별 지리산 약초재배단지, 지리산 약초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